

# “서울대 한명도 합격 못했어요”

## 2014년도 입시 광주지역 일반고 10곳 중 4곳 ‘진학생 0명’

### 전남은 90곳 중 24곳에 그쳐...진학 비율 해마다 줄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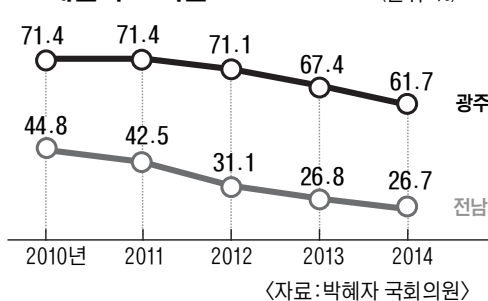
올해 광주지역 일반고 10곳 중 4곳은 서울대에 진학생 한 명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생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일반고 중 서울대 진학생 있는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시에서 광주·전남지역 137개 일반고 중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학교는 53개교로 38.7%에 그쳤다. 광주의 경우 47개 일반고 중 29개교(61.7%)에서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했다. 서울대 진학생을 내지 못한 학교 수는 2010과 2011년 14곳에서 2012년 13곳으로 줄었

다가 2013년 15곳, 2014년 18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2010년과 2011년 71.4%에서 2012년 71.1%, 2013년 67.4%, 올해 61.7%로 톱 떨어졌다. 4년 사이에 9.7%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전남지역 일반고는 더 심각하다. 전남지역은 올해 90개 일반고 중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학교는 24개교로 26.7%에 불과했다. 서울대 진학생이 없는 학교 수는 2010년 48개교에서 2011년 50개교, 2012년 73개교, 2013년 71개교, 2014년 66개교다. 서울대 진학학교 비율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2010년 87개교 중 39개교로 44.8%에 달했던 서울대생 배출 진학학교 비율은 2011년 42.5%, 2012년 31.1%, 2013년 26.8%, 2014년 26.7%로 줄어 들었다. 2010년 44.8%에서 올해 26.7%로 4년 사이에 18.1%포인트 급감했다.

■ 광주·전남 일반고 중 서울대생 배출학교 비율 (단위: %)



(자료: 박해자 국회의원)

박해자 의원은 “일반고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일반고 살리기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자율형사립고 살리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교육부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진학교사들과 함께 하는 대입 성공 프로젝트

### 국어, 틀린 문제는 확실히 잡아줘야 수학, 고난도 문제에 철저한 대비를 영어, 기출문제 활용 실수를 없애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하루종일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이 중요하다. 남은 4주 동안 일과를 수능 당일 상황에 맞춰 습관화하는 게 좋다. 새벽까지 늦게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금물이다. 학습전략도 ‘고득점 비법’을 찾으려 할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EBS 출제 연계율이 70%임을 명심해 마무리 학습을 하자.

#### ⑩ 최종 마무리 학습법

##### ◇국어 영역

9월 모의평가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의 출제가 지난해 수능 3개에서 2개 지문으로 줄었다. 독서(비문학)는 5개 지문에서 9월 모평에서 4개로 축소됐다. 문학도 지문은 줄었지만 대신 하나의 지문에 장르가 다른 작품을 (가)와 (나)로 묶어 출제됐다.

▲상위권 : 실수 유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라=문제풀이를 통해 자주 실수하는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주관과 배경 지식이 개입돼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고쳐야 한다.

▲중위권 : EBS교재와 기출문제로 마무리하라=문제풀이보다 지문과 문제의 의미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문제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위권 : 포기하지 말라=해마다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풀고, EBS 연계 교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수학 영역

지난해 수능부터 새롭게 출제된 세트형 문항과 완성형 문항이 9월 모의평가에서도 A형/B형 모두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다.

▲상위권 : 고난도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라=수학은 표준점수가 큰 과목이다. 고난도 문제 하나가 표준점수의 차이를 크게 벌린다. 특히 30분 문항의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상위권은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읽는 훈련은 문제 진술에서 핵심을 잡아내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이 되는 생각, 즉 출제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이 훈련을 통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위권 : 단골 유형을 마스터하라=EBS 교재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 핵심 유형별로 한 유형, 한 유형씩 기본개념과 함께 정리를 한다. 특히 4점짜리 문제는 유형별로 이론과 접근법을 함께 정리한다. 급하다고 답을 훑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위권 : 기본 문제에 충실하라=수학 4과목(수학 I, 수학 II, 적통, 기백)의 기본문제를 정리한다.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한 과목씩, 2~3점짜리 쉬운 문제부터 정복해야 한다. 2점은 3문제, 3점은 14문제가 출제되므로 총 48점이다. 행렬에서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기백에서도 쉬운 문제가 있다. 기본을 해야 한다. 다른 것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4과목의 예제만이라도 전부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 ◇영어 영역

6월과 달리 9월 모의평가에서는 연결사 문항 대신 빈칸추론 문항이 1문항 추가돼 4문항이 출제됐다.

특징은 4문항 중 3문항이 연계 출제돼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상위권 : 실수를 없애라=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준별 수능을 통합형으로 시행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쉽게 출제된다. 중상위권의 점수차가 크지 않으므로 상위권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이 빈칸추론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중위권 : EBS 교재와 기출 플러스를 활용하라=기출문제는 유형의 보고이다. 중요개념은 반복 출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정제된 문제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들이 많다. 다만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유사한 시험지를 놓고 문제 푸는 실천 감각을 위해 수능완성의 실천편과 파이널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라.

▲하위권 : 수능 완성과 특강 위주로 최종 정리를=듣기의 경우 도표를 보고 고르는 문항은 EBS 교재의 자료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독해는 많은 문항이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쓰되 유형을 변형해 출제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특성에 맞게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개념 이해와 적용에 관한 글은 문제만 풀고 넘어가기보다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며 읽고, 독해에 필요한 어휘와 어법을 학습해야 한다.

〈한철민 시민기자·송덕고 교사〉

## 전남 초·중·고생 ‘진로박람회’ 연다

전남 진로박람회가 16~18일 사흘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내 꿈 UP! 도전 GO!’를 주제로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2014 전남진로박람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 53개교 60개 기관이 168개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하고 흥미있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진로박람회는 순천고용센터·광주교대·전남진

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마련한 자기이해관, 전남대·특성화고 등의 학교탐색관,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 직업체험관, 호남대 IT스퀘어·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탐색관, 자유학기제 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자기이해관에서는 진로검사를 통해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진학상담관에서는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과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심층 진로진학상담도 실시한다.

## 내일부터 사흘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68개 부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또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정보를 알려주고 3D프린터와 로봇공학 등 차별화된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방송 아나운서와 웹툰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직업인들의 특강도 들을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전 10시30분 콘퍼런스홀에서 열리며,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간호조무사 자격과정 등 학교밖 작업장학교 운영

###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 문기진)는 14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 배움을 지속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작업장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업장학교는 간호조무사·한식요리사 자격과정, 목공기술, 캘리그라피, 네일아트, 슈가크래프트(설탕공예), 책제본 기술, 바리스타 과정 등이 운영된다.

과목별로 최소 3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간호조무사(30% 본인 부담)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무료다.

참가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신청서는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gj1388.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이메일(mong3902@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4-007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원하십니까?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봉사단(지도교수 안민주)이 최근 광주 빛고을노인타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스포츠마사지, 테이핑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어르신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동신대 제공〉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년 뒤로 종주국으로 개와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으며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인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시험 주인공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도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